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도일 스님

“전통 대승불교 계승·발전”

1700여 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계승·발전했다. 대승불교는 조선시대 승유역불 정책과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신·생활의 근간이었다. 현재 한국불교는 대부분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출가증식의 교단, 형식적이고 소승적인 계율 정신 등 본연의 대승불교와는 거리가 먼 계 현 실이다.

대한불교대승종(종정 천관)은 성도 대종사(2005년 2월 25일 열반)가 대승불교 본연의 의미를 찾고, 이를 널리 포교하기 위해 1998년 5월 28일 흥도사(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창종한 종단이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인류평화와 만물을 구원하기 위한다. 총본산은 상원사(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이며, 현재 450여 출가자가 종단의 본·말사에서 대승종풍 함양에 힘쓰고 있다.

대승종은 정토사상 불행, 타력 염불신앙을 종지로 석가세존이 설한 자각각타(自覺覺他)의 근본교리를 구현한다. 본 종단은 대승보살행을 통해 위로는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아래로는 광도중생(廣度衆生), 호국안민(護國安民), 세계평화를 이룩 중생을 구제하고, 참다운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포교하는 사부대중 평등 종단이다.

이를 위해 ▲자(慈)무량심(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과 우애의 마음) ▲비(悲)무량심(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여 제거해주는 일) ▲희(喜)무량심(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일) ▲사(捨)무량심(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일)의 사무량심(四無量心), 팔정도(八正道) 등 대승불교 수행을 근본으로 전종도가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뉴욕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하고, 2008년 제11회 한·중·일 불교우호대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해외포교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바른 종풍 수행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매년 종도 하계 수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교육, 전문교육, 연수교육, 특수교육, 법계고시를 각 계층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대승종은 지역 순회법회, 지방 중무원 활성화 등을 통해 종단의 홍보와 신인 종도·행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도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상설 강원·교육원 설치, 예불 등 각종 의식 통일화를 위한 의식집 발간 등으로 종단의 내실을 다져, 대승불교 본연의 종풍을 널리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2)951-1074
정리=김진성 기자

대보탑 불벽 ‘법화경’ 석경불사 회향

천태종 삼광사, 1년여 만에 불사 마무리...종단 대덕 스님들 모시고 봉행

불법이 흥성하고 남북통일이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담긴 삼광사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 불벽의 <법화경(妙法蓮華經)> 석경불사가 원만회향됐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1월 12일 오전 11시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 앞마당에서 장엄불벽 <법화경> 석경불사 및 대보탑 상륜부 법륜대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연다.

1년여 만에 불사를 마무리한 이번 회향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들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할 예정이다.

회향대법회를 맞아 주지 영제 스님은 “불벽의 <법화경>은 대보탑을 처음 불사했을 때 새겼는데 1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다보니 비와 바람에 희미해져서, 이번에 새로이 석경불사를 하면서 붉은 색까지 입혀 많은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992년 11월 부터 1997년 4월까지



삼광사 석경에 붉은색을 입히는 모습.

지 중 4년5개월에 걸쳐 완성된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은 지름 14.55m, 높이 30m 규모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탑에는 미얀마 사찰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보내온 총 10과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

이번 석경불사를 마친 장엄불벽 상단에는 <법화경> ‘육요품’, 변상도, 53불 명호, 비천상,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하단부에는 동진보살,

팔금강, 비천상이 새겨져 있다.

특히 석경불사를 위해 삼광사의 모든 신도들이 한 글자 이상씩을 시주한 정성이 모여 더욱 뜻 깊다.

김석조 신도회장은 “<법화경>은 천태종의 기본 경전인 만큼 모든 불자들이 <법화경>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일리는 법공양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삼광사(051)808-3179

박지원 기자

“음악 통한 생활 속 불법, 행복 구현”

제1회 청주 우암산 명장사 산사음악회 개최

천태종 청주지역 포교 36주년과 청주방송(CJB) 창사 11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하나 된 산사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천태종 명장사(주지 화산)는 10월 31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경천 스님(천태종 사회부장), 현진 스님(청주청원 불교연합회 사무총장)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 오제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했다.

가수 송대관, 한해진, 이창용, 프리 프리, 김양, 왕소연, 김태곤 등이 출

연해 흥을 돋운 행사는 범음을 통해 종교간 화합과 너와 내가 하나 된 장을 펼쳤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처음 시작한 명장사 산사음악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깨끗한 마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봐 어려운 나라 경제를 불자의 힘을 모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화산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명장사를 향산 시민에 개방하겠다. 불교를 어려워하지 말고 생활 속에 항상 불법이 있음을 알고 가까이 해달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다양한 차로 마음 씻어요”

제3회 대한불교수도원 백차시음회 개최



심우다회 회원들이 백차시음회를 진행중이다.

300여 종 국화와 인도, 티베트, 중국, 영국, 스리랑카 등 10여 개 나라 차 120종을 맛보는 시음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은 10월 31일 심우다회 회원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차시음회와 명상 차법 시연을 가졌다.

청주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다도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설곡 스님은 “술 좋아하는 민족치고 망하지 않은 민족 없고, 차 즐기는 민족치고 흥하지 않은 민족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정원을 가꿀 줄 알아 영국인사 소리를 듣고 자연을 좋아해야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있다”며, “차 마시는 동안 자연에 눈뜨고, 자연 속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종단 현안 토론·의견수렴 ‘집중’

태고종 종단현안대책위 중회 개최

태고종 종단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인공·월운)는 11월 5일 서울 전선관에서 회의를 열고, 12월 10일경 제96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해 종단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종단현안대책위 공동위원장 인공 스님(중앙총회 의장)과 월운 스님(중앙사정위원장), 대책위원 보경·환우·월해 스님(이상 총무원 부원장), 원봉·대은 스님(이상 중앙총회 부의장), 청봉 스님(중앙조심원장), 영우 스님(동방불교대학장) 등 9인의 대책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대책위는 회의에서, 보수승가회가 제기한 총무원장 의혹사항을 조사할 중앙총회 조사위원으로 중앙총회 의원인 원해, 만우,

경담, 대원 스님 등 4인을 공식적인 조사위원으로 위촉키로 중앙총회의장단과 합의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제95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선출된 7인의 조사위원 가운데 지훈, 능해, 법담, 영우 스님 4인이 사임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새 진용을 갖춘 7인의 특별조사위원회는 11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협의한 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종단 현안 해결에 보다 광범위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 회의를 조만간 개최키로 하고, 회의 날짜는 중앙3원장에게 일임키로 결의했다.

김성우 기자

구족계·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12월 1~2일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1~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제5기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3일 오후 2시 봉원사에서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구족계 참여대상은 ▲합동독도수계산림 후 4년 이상 경과된 스님 ▲승탑 5년 이상된 종단 스님으로 구족계를 수하지 않은 스님 ▲타 종단에서 전종한 승탑 5년 이상 스님 ▲타종단 재적승려로서 구족계를 받기를 희망하는 스님(승적증명서 첨부)이다.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전법사계를 받지 않은 전법사 희망자 누구나 수계 받을 수 있다.

동참자는 태고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11월 14일까지 총무원 교무부 및 각 시도교구 총무원에 접수하면 된다. (02)739-3450

김진성 기자

제907주기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 봉행

고려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의 열반 907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2일 총무부장 무원 스님의 사회와 책단양 구인사 역대 조사전에서 제907주기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천태종 개조 의천 스님 등 한·중 역대 천태조사 36존께 차를 올린 다례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

님,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등이 참석해 천태종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총무부장 무원 스님의 사회와 책단양 구인사 역대 조사전에서 제907주기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천태종 개조 의천 스님 등 한·중 역대 천태조사 36존께 차를 올린 다례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

김성우 기자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19일 수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 무초 정 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